

최용석 소리꾼이 5일 중구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프레스 시연회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

조선 풍미한 광대 '달문' 웹판소리로 재탄생

유튜브 최적화된 3차원 영상 제작

"나졸이 바뀌면 달라지나 / 육방아전 이 바뀌면 달라지나 / 우리고을 사또가 옆고을 사또와 자리를 바꾸면 달라지나 / 당하관이 당상관이 되고 / 당상관이 당하관이 되면 달라지나 / 나라님이 바뀌면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 나라에 붙은 벌레들 똑떨어지고..."

웹드라마, 웹예능, 웹툰, 웹다큐... 왜 웹판소리는 없을까. 서울문화재단이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와 문학, 시각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 콘텐츠 '웹판소리'를 개발해 선보인다.

서울문화재단은 8일 오후 3시 웹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팍TV'를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김탁환 작가의 역사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애'의 주인공 달문의 생애를 판소리와 영상 기법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산대놀이, 검무 등 전통 연희를 만나볼 수 있다.

조선시대를 풍미한 광대이자 재담꾼인 달문은 청계천 수표교, 동대문시장, 창덕궁, 마포나루 등 서울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풍자와 재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다.

김탁환 작가는 "달문은 당대 최고의 추남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는 춤꾼이었다. 공연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 부자

였지만 가난했다. 민란의 두목으로 몰려 결혼을 안한 죄를 물게 돼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인물이 됐다"며 "이러한 세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물, 달문이 꿈꾼 세상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웹판소리 '달문'은 소설가 김탁환, 소리꾼 최용석, 그림 작가 김호찬 등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창작자들은 1차 콘텐츠인 소설을 전통음악인 판소리로 2차 재현하고 유튜브에 최적화된 캐릭터 이미지(모션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를 더해 3차 영상으로 만들었다. 배경음악은 국악 공연단 '공명'이 연주했다.

재단은 11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스낵컬처를 선호하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영상은 3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해외 시청자를 위한 영어자막 버전도 제공된다.

김종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술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장르 간 협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소설, 판소리, 시각예술로 관심과 수요가 환원되는 혁신적인 창작문화콘텐츠 모델이다"며 "전통적인 판소리 공연을 넘어 국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한류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미래교통 수단을 직접 타 본다 드론택시·자율주행 택배 집결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교통시스템 변화·미래 청사진 제시
유인드론·친환경 자율주행차 전시
VR로 하늘을 나는 가상 체험 제공

서울의 이동 패러다임이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함께 누리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8~9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와 MBC 앞 문화광장 일대에서 '2019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전망하고 모빌리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미래 교통혁신을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가 열리고 유인드론과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이 전시된다.

행사 첫날에는 '이동의 미래,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상암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모쉬 벤 아키바 M IT 교수가 '스마트 모빌리티 새로운 미래, 공유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새로운 기회: 유인드론



미래 모빌리티 반자율주행차량 전시.

/서울시

이 바꾸는 도시'와 '서울을 움직이는 자율주행사업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드론택시 업체를 선도하는 독일 '블로콥터'와 중국 '이항', 미국 '우버'의 드론 기체를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상암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타볼 수 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는 행사기간에 테스트베드 도로로 조성된 월드컵북로와 상암로 일대 약 3.3km를 주행한다.

자율주행 택배 로봏은 9일 ▲주차 ▲

장애물 회피 ▲교차로 주행 ▲장애물 긴급정지 등을 시연하며 택배 운반 미션을 수행한다.

전동 키보드와 전동 휠로 도심을 달려보는 퍼스널 모빌리티 체험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VR(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실제 드론에 탑승해 하늘을 나는 가상 체험도 해볼 수 있다. 교통카드 대신 얼굴을 단말기에 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안면인식 체험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엑스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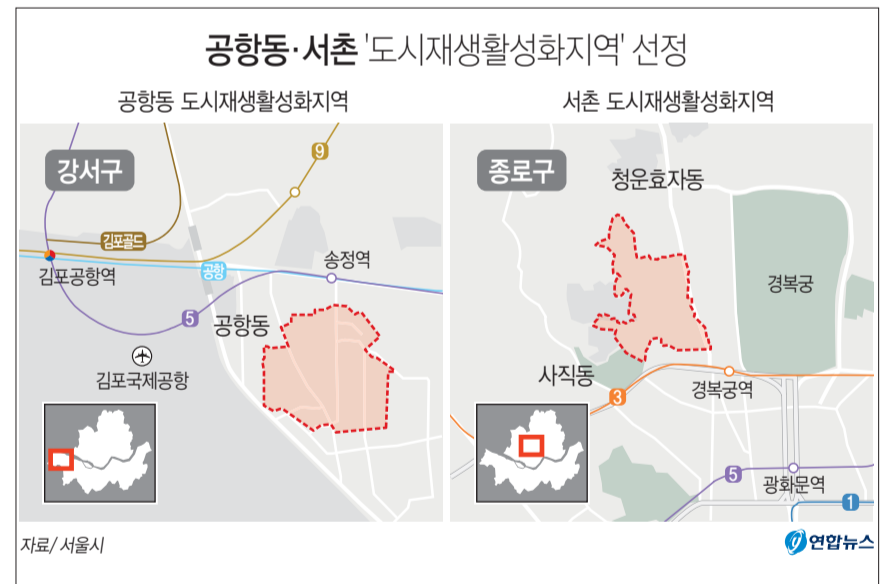
공항동·서촌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서울시 두 지역에 5년간 200억 지원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해 개선 필요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과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두 지역에 향후 5년간 총 200억원(1곳당 1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항동과 청운효자·사직동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회복이 절실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항동은 김포국제공항,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근처 마곡지구 개발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경북궁 서쪽에 자리한 청운효자·사직동은 노후 한옥과 관리해야 할 빈집이 많다. 도시의 옛 모습이 잘 보존돼 있고 옛길(물길)과 미래유산, 우수 건축자산(체부동성결교회, 흥종문 가옥, 시인 이상의 집 등), 세종대왕 탄생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시는 두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적 기준 등 적합성을 검토했다. 향후 공항동과 청운효자·사직동이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비가 500억원(지역당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세금 납부서비스, 사회적 약자 눈높이 맞게”

서울시 ARS·무인납부기 등 신설

서울시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세금 납부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이는 ARS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ARS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내 화면이 뜬다. 기타 세외수입 조회와 납부, 지방세 환급금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층을 위한 무인납부기도 설치한다. 그동안 은행에서 사용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무인공과금납부기보다 높이가 낮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도 있다.

저시력인을 위해 200% 확대된 화면을 도입했다.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도 추가했다.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세금 무인납부기./서울시

시는 6일부터 마포구청과 공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인납부기를 시범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 10개 복지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수능일 장애인 수험생에 콜택시 우선 배차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고객,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수험생들이다. 희망자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신청 기간은 5일부터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선 배차 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야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다.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운영돼왔다.

/김현정 기자